

<<서울주보 2009. 03. 08.>> 생명의 말씀

그분의 옷은 새하얗게 빛났다

구 요비 욥 (지도신부)

참으로 불행하게도 나는 프라도회의 국제회의에 참석 중 김수환(스테파노)추기경님의 선종 소식을 접하였다. 서둘러 귀국하려는데 여러 신부님들이 만류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한국 교회의 슬픔에 참여합시다!' 하고 간청한다! 참담한 심정으로 지내며 기도하다가 '아! 추기경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웃으시며 강복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를 바라보며 더욱 그러하다. 김 추기경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은 분이시다. 시공을 초월하여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성인들의 통공을 믿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게 된다.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이야기는 특별히 '그분의 옷은 새하얗게 빛났다(3 절)'고 말한다. 몸은 인간의 영혼이 머무르는 집이며 사람의 속마음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예수님의 이 외적인 변모는 이분의 내적인 본성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준다. 즉, 예수님의 인간성(人性)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신성(神性)을 계시해 주신다.

예수님의 신성(神性)이란 다름 아니라 이분이 지니고 계신 선한 마음(善性)을 말하는데 '선(善)은 존재(存在)의 자기 확산성을 지니고 있다'(토마스 아퀴나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선생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5 절)' 하고 고백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참된 아름다움(美)이란, 선한 마음(善性)이 외모로 흘러넘쳐 찬란한 빛처럼 확산되어 가는 걸 말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묵시 1,13-16)을 미리 보여주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를 암시하신다(9 절).

예수님의 존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선하신 마음이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온전히 아낌없이 내어 주시려는 오롯한 심정과 결연한 의지이다. 이 선한 의지는 이미 이분의 탄생과 더불어 온 생애 안에서 실현되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이분의 수난과 십자가의 길 안에 이미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의 아름다움은 온 생애와 모든 행동 안에 퍼져 있다. 말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모범 하나 하나가 이분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당신이 겪으실 수난에 앞서, 이 수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움의 신비를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의 신비 안에 주님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주님처럼 선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할 때에 주님 영광의 빛이 이미 이 고통 안에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7 절).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2 코린 3,16-18).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르 9,7)-

평화와 선

첼커덕 첼커덕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난다. 물소리가 요란스럽다.

한 어르신이 세수를 하고 들어가신다.

괘종시계 소리가 울린다. 한방을 쓰시는 어르신이 " 야야, 옥아 저것 좀 꺼라. 옥아, 옥아!!" 하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 선생님들(요양 보호사) 모두를 옥이라 부르신다.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괘종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그 어르신은 아무리 우리가 밤에 가서 꺼놔도 언제 다시 켜 놓으시는지..

한 밤중에 적막을 깨고 울리는 그 괘종소리에 놀라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 당신은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으시다 시계를 끄러 온 저희를 보고 미안해 하시며 빙그레 웃으신다.

치매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다시 반복되는 내일의 삶이 예전의 그분의 삶이었을 것 이다.

새벽 4 시면 성경을 보시는 그 어르신을 바라보며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로구나..하고 생각한다.

95 세가 되신 그 분은 오늘도 이 삶을 반복하고 계신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은 65 세에서 107 세까지 어르신 29 분이 계신 곳 이다.(며칠 전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병원에 가셨다.) 대부분이 개신교에서 권사, 전도사, 목사를 하시다 나이가 들어 서로 의지하며 사시다가 (그 분들끼리 사는 곳은 따로 있음) 선생님들의 보살핌이 필요하시면 이곳으로 오시는 분들이다.

소변 줄 끼우시고 코로 식사하시는 분, 움직이지 못하시어 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 드려야만 하는 분(욕창 때문에), 결벽증으로 화장실에서 씻고 또 씻어 다른 분 들과 자주 다투시는 분, 기저귀를 채워드리면 당신이 빼고 옷에 오줌을 누시어 4-5 번씩 옷을 갈아 입혀 드려야 하는 분, 대변을 보시고 미처 치워드리지 못하면 손으로 이불에 다 닦으시는 분, 그 조차도 못해서 핑거 해야 하는 분을 볼 때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치매라 하더라도 사회(교회 내)에서 직분 때문에 간간히 정신이 돌아 올 때면 '감히' 와 '괘씸죄', 또 '왕년에'라는 말을 하시면서 다투시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씁쓸하다 못해 슬프기 조차하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무엇이든지 생기면 주머니를 털어 나누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화장실 수건까지도 가져가 감추시는 분을 볼 때 주먹을 쥐는 삶과 펴는 삶을 목상해본다.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 체격만 어른이지 모두 어린이와 같으신 분들이다. 하고 싶으신 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참으로 단순하신 분들이다.

한편으로 이곳은 하느님께 가시는데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분들은 사람이 그림고 사랑이 그리운 분들이다.

이 분들을 사랑하며 이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이분들 속에 묻혀 살려고 한다.

이곳에 있으면서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

만 며느리라고, 큰 딸이라고, 살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준비했던 살림이 버겁다.

요즘은 집안을 정리하고 또 정리한다.

이렇게 자신도 정리하고 정리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르신들을 선한 맘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왔노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오늘도 개울 뚝을 따라 논둑을 따라 걸으며 사부님의 기도 '태양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와 찬미를 드려본다.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맘에 i i i i i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아멘.

2009 년 2 월 18 일, 김 수환 추기경 선종 사흘째 날.

暮冬 오후, 한 빛으로 무직하게 얼부푼 얼굴들을 3 십여 분 거슬러서야 2 천 여 미터 조문행렬 썰매에 붙어
섰습니다. 거기 끼어 당겨지는 대로 밀리는 대로 몸 맡기고 책을 읽었습니다. 금세 까마득해지는 내 썰매를 달고
명동 상가골목에서 꺾였다가 다시 굽이쳐 지하철 명동역을 지나 세종호텔을 돌았지만 아직도 두어 번 더 느슨
목넘이를 해야 명동성당입니다. 기도 송 한 줄 소리 내는 이 없이 소복 입은 표정들이 조용히 밀립니다.

어떤 음식점은 유리문에 조문안내지도를 그려 붙이고 조심스레 음식냄새를 내보냈습니다. 또 어떤 찻집 소녀는
실내 온기가 송구한 듯 가라앉은 시선마저 비켰습니다. 내 앞을 가로지르게 되는 행인들은 되레 먼저 고개를
수긏수긏 했습니다. 실로 모처럼 은연한 저들 나뭇의 조문, 머리 더 숙여 기도로 받았습니다. 저들 비록 목 깊은
안쪽에서 사무치지 않았더라도 잠깐 다소곳한 그 미쁨에 나 절로 팔알만큼 오므려지는 겁니다.

그럴 줄이야!

가만히 내려놓은 누군가의 한 올 숨결이 地殼을 뒤집는 회오리일 줄이야. 낮선 옆 사람 옆 사람 서로서로 나직나직
주고받는 滯내리 告解 들으며 이리 순순히 발가벗고 싶어질 줄이야. 아, 목정발 깊숙 깊숙 객토 당할 큰 용기 내게
있을 줄이야.

세 시간 반 만에 책을 접었습니다. 시린 손 위, 정수리 위, 어슬넝 바람 그 위, 서울 복판을 그어가는 검은 새 한
마리 보았습니다. 소리 없이 횡으로 그어가던 검은 줄이 문득 내 앞에 곧추섰습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까악, 지금
하라 까악,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까악 까악 까악. 행복하여라, 끄으악!

나는 거꾸 뜨끔거립니다. 내 기도 얼마큼이 업살이었나, 내 용서 얼마큼이 변덕이었나, 내 나눔 얼마큼이
시늉이었나. 도대체 내 사랑 얼마큼이 욕심이 아니었나. 그리고는 염치없이 온 몸을 귀로 열었습니다. 더 염치없이
들었습니다!

네 업살이 기도다! 지금 네 시린 열 손가락이 기도다!

실눈도 안 뜨고 나를 통째 보아버렸나 봅니다.

하얀 제의 하얀 모자 검은 구두차림으로 유리관에 가로 누운 그분!

업살이 빠진 기도만 추려지는 줄 알았습니다.

행렬에 밀리며 당겨진 게 어찌 기도이라 싶었더랬습니다.

말문이 막혀 마지막 업살을 못 합니다.

김 수환 추기경님 안녕히 가십시오.

*** 참 제자 마을 설립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겸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 복음적 실천 목표**

주제 ; 삼위일체 신비와 하나님의 가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적**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 터
- **노인 요양원**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터
- **환경 생태 공원** ;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 터
- **관상 수도원** ; 젊고 활기찬 한국교회가 소홀 하기 쉬운 기도와 관상을 위한 기도의 터
- **포항 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 ; 이웃 사랑의 실천과 배움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 순수 기부금; 837-21-0285-795 국민은행 양 명신

* 조건부기부금; 055-21-0724-082 국민은행 양 명신

(년6%금리적용 봉헌금 산정, 20011년12월 상환 예정)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 011-9961-3600 , 031-584-9117

팩스; 031-584-9117, e-mail ; thomyang@inteckor.com

< 신립 및 입급 현황 > 2009. 3. 26. 현재

신립인원	신립금	납입인원	입급액
123	684,592,000	830	487,137,000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가톨릭 명동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4억 원 중 회원님들의 협조로 3월26일 현재 총 3억6,000 원을 상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은 4,000만 원 입니다. 2009년에 진입로 공사 및 피정의 집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주위에 권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일 12시 정오에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중기도 후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 또는 주모경 및 어떠한 화살기도도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2008년 12월 13-14일 동계피정**

이그리스도의 탄생과 가난의 신비이 주제로 구신부님께서 이바오로사도와 가난의 신비이에 대한 주제 강의와, 진 교훈 원장님의 이현대사회 가치관의 문제점과 참된 가치관의 이해이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으며, 공 명순 소피아 자매님의 생활 체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 2009년 2월7일(토)-8일(일) (1박2일) 피정**

참제자 마을 정신 확립 및 상징성 정립을 위한 피정이 구신부님을 포함하여 32명이 참석하여 강원도 횡성군 우니따스 너와 집에서 3번의 성체조배와 묵상을 통해 3번의 조별 나눔으로 향 후 참제자 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체성, 상징성, 정신, 목적, 목표, 사업범위, 사업내용, 향후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으며,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기도하여 주신 형제자매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별도의 시간을 할당하여 양업문화 교육원 문화강좌에 대한 2009년도 연간 진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지난 2월 5일 정 영선 선생님 (조경설계 서안)께서 그 동안 참 제자 마을 마스터 플랜을 1단계 마무리 하시면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마스터 플랜에 따라 세부 계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 20일 정 선생님과 한국의 최고 건축가이신 정 기용 선생님과, 조 성룡 선생님께서 모곡 임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 제자 마을 조성에 대한 기본 설계 자료를 확인하셨습니다. 향 후 경계측량 및 등고선 측량 후 기본 설계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3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2월22-24일(2박3일) 제주도 성지 순례**

2년여동안 매주 토요일 성체조배에 출석율이 양호한 백 영국, 박 광용, 문 수정, 홍 순숙, 김 정숙, 양 명신 이상 6명(총경비 744,576원)과 그외 2명 총8명이 제주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 3월21일 -22일 모곡 임야 노력봉사에 24분이 참석하여 누군가 불법으로 간벌한 나무 등을 40% 정리하였습니다. 저녁엔 토요 미사와 김 수환 추기경님 선종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천관계로 일요일은 미사와 복음 나누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하여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4월 6일(월) 대한 지적공사에서 모곡리 임야 산221-222번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계 측량비는 1,845,800원입니다.

* 4월9-10-11일 성주간 성3일에 만찬미사와 성체조배, 부활전야미사가 성북동 프라도집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세부사항은 별도 공지)

- 매주 토요일 15시 성체 조배와 나눔 및 미사

15시 - 16시 ; 성체 조배

16시 - 17시30분 ; 나눔

17시30분 - 18시30분 ; 특전미사